

구역부에서는 사랑방을 통하여 벨엘의 공동체가 튼튼해지며, 주님의 몸된 지체를 건강하게 이루는데 윤택유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하며 사랑방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분기별로 발간되는 소식지에 실릴 교구/사랑방 소식이나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글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고는 구역부 메일함 혹은 이메일 (SMALLGROUP@BETHELCHURCH.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 년도에 소식지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위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사랑방 사역: 현재 교회를 중심으로 5 개의 지역 (북동, 북서, 남동, 남서, 중앙) 안에 20 개의 교구가 있으며, 61 개의 사랑방이 있습니다.

구역부 사랑방 소식지팀
 담당 목사: 조명재



백신종 담임 목사님 칼럼

“성탄의 메신저”

메리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복된 성탄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벨엘의 모든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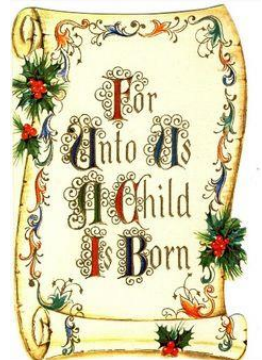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님이 빠져버린 성탄절은 상업주의와 이교주의가 차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만족과 평안, 자기 기쁨과 향락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성탄절은 성경이 말씀하는 성탄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함” (로마서 5:8) 이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하신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세리와 범죄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의 삶을 용서하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비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실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12-13)

간음한 여인의 불법적인 죄도, 세리 삭개오의 사회적인 죄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죄도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용서와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 교회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교회입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의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벨엘의 모든 성도들이 성탄의 메시지를 살아내어 허물과 죄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베푸는 성탄의 메신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식지는 벨엘교회 WEBSITE (WWW.BETHELCHURCH.ORG) 에서 교구/사랑방 사역 PAGE 밑에서 ELECTRONIC VERSION 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사랑방 및 사랑방장 소개

남서 1 교구 2 사랑방 - 윤선미 사랑방장

몇 해 전엔가, 사역자반을 마쳤을 때 김동우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제 성경공부도 마치셨으니 사랑방 사역을 하시면 어떠신지요?” 그때 저는 경험도 없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르신들 섬기시는 일 원하시지요?” 라고 말씀하시던 나즈막한 음성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사랑방일을 돕고 계시는 남숙희 집사님을 비롯한 여든 안팎의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이제 와서 되돌아보면 여러모로 미숙했기 때문에 오직 열심만을 앞세우기가 일쑤였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누구길래 이렇듯 귀한 자리에 서게 하셨는지를 감사드리게 하셨습니다.

올해부터는 사랑방 가족들께 좀 더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하여 봄에는 임상윤 장로님과 임정애 권사님을, 가을에는 정송석 장로님과 정미의 권사님을 모시고 '노년을 좀 더 유익하게 보내기 위한 성경적 건강 강의'를 듣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두호 장로님께서 섬기시는 남동 4-1 사랑방 가족들께서 봄, 가을 소풍 때마다 저희들을 초대해주셔서, 풍성한 대접을 해주고 계십니다. 언제라도 말씀드리면,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방을 해주시는 조명재 목사님, 늘 따뜻한 손길로 도와주시는 황성훈 장로님... 이렇듯 낮은 곳에서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로 인하여 저희 사랑방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방 모임에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힘드셨던 이민생활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오셨던 간증들을 나누시곤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사랑방 가족들이 오랜 병환 중에 계시다가 저희들 곁을 떠나실 때, 좀 더 잘해 드리지 못했던 후회와 그리움이었습니다. 늘 순종으로 도와주시는 권정숙, 김혜경 집사님, 그리고 윤연단, 김정숙, 김영숙, 정의임, 이복녀, 조점렬, 안점덕, 고선희, 정정자, 홍현표, 김말수 집사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어 제가 믿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한 제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어리석고 게으른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불평없이 늘 반가워 해주시며, 격려해주시는 사랑하는 사랑방 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벤엘 독후감 대회 주최

- 공보부 도서실 최남천 심사위원

제 4 회 벤엘교회 도서실 주최 독후감 대회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 사랑방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예년과 달리 개인이 아닌 사랑방 단위로 개최되었습니다. 30 여 사랑방에서 교회 도서실을 통해 추천도서를 대출하였고, 사랑방 전체가 개인적으로 책을 구입하셔서 읽으신 사랑방도 있었습니다. 시상방식은, 사랑방별 참여도 외에 다음의 독후감 심사기준을 적용했습니다.

1. 형식: 독후감 길이, 문장과 구절의 뚜렷한 구분과 맞춤법, 띄어쓰기 등.
2. 내용: 읽은 내용 그대로의 요약이 아닌, 자신이 느끼고 깨달은 점을 책의 감동적인 문장과 함께 간결하게 표현하는 능력. 결말은 자신이 책을 읽고 느꼈던 감정, 현실의 체험, 미래에 대한 소망과 깨달음, 하나님의 사랑 등이 담겨있음을 평가했습니다.

사랑방별 수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상: 남서 3-1 **은상:** 북동 4-1, 북동 2-1 **동상:** 남동 3-1, 남서 2-5, 북동 4-2

장려상: 남서 2-2, 남동 3-2, 북서 4-2, 4-6, 북동 1-1, 1-2, 북동 2-2

개인별 상은 없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독후감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또한 앞으로 사랑방 소식지에 차례로 소개하려 합니다.

맥스 루카도의 “예수님 처럼” 을 읽고 나서

- 조중엽, 남서 2 교구 2 사랑방



사실 이 책은 한 10년 전쯤 내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내게 많은 깨달음을 준 책이다. 이번 독후감 대회를 계기로 다시 읽게 되면서 그뻘 깨닫지 못했던 점들을 묵상하게 되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늘 경험하는 일들로 인해 때론 힘들 때도 있다. 한 예로 IT에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 직장에서 늘 다른 사람이 모니터링하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한다.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을 주시하고 있다 라는 사실에 때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책 속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나에게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지를 가르쳐준다.

저자는 예수님을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3년 남짓 열두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하신 예수님은 진정 제자들의 모든 면을 아셨을 것이다. 짐작컨데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진정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를 의심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또 기분이 나빠 예수님께 마음속으로 불평을 털어놓았을 수도 있다. 때론 확실치 않은 앞날을 불안해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에 회의를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을 용납하셨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와 같이 마음에서 우환함과 배신감, 그리고 아무도 모를 감정의 변화를 겪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침묵하셨다. 그들에 대해 불편한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내하시고 포용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저자는 특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를 묘사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그분은 베드로가 자기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또 가롯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제자가 자기를 팔 것도 아셨으나 그분은 끝까지 그를 아끼시고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내와 사랑은 바로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심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지만은 않은 인생살이를 하면서 때론 내가 겪는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때가 많다. 머리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되새기고 있으나 정작 내 마음은 그럴 믿음과 여유가 없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준다. 정작 날 힘들게 하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란 것을 깨달았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나쁜 감정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는다. 누가는 사도행전 5장에서 고난의 상황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말해준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무리를 그냥 내버려두라는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주님께 아뢰라고 가르치신다. 그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준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때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 삶 속에서의 고난은 너무도 작은 것이 아닌가?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적고 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이미 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사실 난 고난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죄로 인해 내가 고난을 당한다 라는 생각보단 주님이 내 대신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내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시고 내 마음의 염려와 고생을 잘 이해하신다. 그분이 친히 우리와 같이하셨고 친히 우리가 겪는 고난을 미리 경험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내 침상에 가시를 두심은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 자지 않게 하려 함이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찾게 하려 함이라고 제임스 팩커는 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직시할 때, 나를 힘들게하는 무리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를 모함하는 무리를 안으셨다. 과연 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들을 정죄할 권한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주님과 같이 나도 그들을 사랑으로 안고 싶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 주님이 허락하신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길 소망한다.

사랑방과 선교사의 아름다운 만남

- 세계 선교센터 원정희

'사랑방과 선교사 연결 사역' 그리고 '선교사님께 사랑의 선물 보내기'를 통하여 사랑방과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만남이 펼쳐지며 많은 결실을 맺는 기쁜 한 해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가는 복음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랑방 사역과 함께 세계선교센터가 협력할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2017년 새해에 개최된 '사랑방과 선교사 연결 사역'에 현재 동참하고 있는 사랑방은 36 군데입니다. 지금도 계속 관심을 보여주시며 신청을 해주시니 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뱌엘공동체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 중보기도해주시며 또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셔서 '선교사님께 사랑의 성탄 선물 보내기'가 실시될 수 있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명절의 카드와 사랑방의 선물, 그리고 지역과 사역에 따라 백신중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단기선교 퍼스펙티브 (Joining God's Mission) 책이나 무슬림의 성경 변조 비난에 대한 유순한 대답 (The Gentle Answer to the Muslim accusation of biblical falsification)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선교지에서 선교활동 하시는 선교사님 신변의 안전과 보안유지를 고려하며 우송물 내용 (사진), 그리고 저렴한 우송비 등, 여러 모양의 도전 가운데에서도 사랑의 선물들이 선교사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사랑방과 선교사 연결 사역'을 통하여 또 펼쳐지는 기쁜 일은 선교사님께서 뱌엘을 방문하시면 지정된 사랑방과의 교제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 방문하여 선교보고 해주신 박윤석 선교사님과 남동 4-2 사랑방(유경식 집사님)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선교사와 사랑방 연결 사역'에 동참해주셔서 아름다운 만남과 결실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의 바램은 사랑방과 선교사님의 아름다운 만남이 지속되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선교사님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더욱 더 깊이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뱌엘의 자녀들과 선교사님들의 자제들(MK)도 서로 연결 사역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우연히 저에게 전해주신 '땅끝의 아침'에서 한 선교사 자녀의 고백이 메아리쳐 옵니다. "초등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친 후, 나는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튀니지로 갔다. 이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의 시절을 내 인생의 암흑기라고 부른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래서 저자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양이 하나라면, 선교사 사모를 위한 기도는 둘이 되어야 하고, 선교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셋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가며 달려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와 경배를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뱌엘공동체가 될 수 있게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10-14)

